

[원빈스님의 천수경 6] 팔정도·사성제로 여은 지혜안, 대승. 밀교관점에서 본 천수경

속지일체법 → 일체법은 일체지. 해탈하는데는 일체지가 필요 없다. 아라한은 자아로부터 자유로와지는 지혜 즉 무아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무학이라 한다. → 성불

조득지혜안 → 지혜 (절대적 보리심)

속도일체중 → 자비 (상대적 보리심)

----- 대승

조득선방편 → 방편

----- 밀교

밀교는 초기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를 총합한 것이다. 교리적으로 가장 발전형이다.

밀교의 삼구법문이 유명하다. 대일경에 나온다.

수행의 주제는 보리를 인으로 삼고, 자비를 근으로 삼고, 방편을 구경으로 삼는다.

보리와 자비를 바탕으로 성불을 이루고, 방편을 바탕으로 즉신성불을 이룬다.

천수경에서 대비주가 촉매역할을 한다. 그래서 천수경은 밀교 경전이다.

천수경 속 보리심의 서약인 십원의 두 번째 내용은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득지혜안입니다.

일체지자가 되기를 서원했던 앞의 내용이 총론이라면

두 번째 서원부터는 그 구체적인 방법론인 별론입니다.

그리고 별론의 첫 번째는 바로 지혜의 눈을 얻기를 작원하는 것입니다.

안나 콘다나 존자가 드디어 티끌 없는 청정한 법의 눈이 생겼다고 말씀하셨다.

청정한 법안이 생겨야 한다. 눈이 없으면 갈 수 없다.

팔정도의 구조와 수행단계

정견 : 청정한 법의 눈이 생기기 시작한다.

정사유 : 의 정사유, 정어, 정업의 정은 정견으로 사유하고 말하고 행동한다.

정어 : 구

정업 : 신

----- 계율

정명 : 재가불자(올바른 일상으로 살아감. 바른 직업)

정정진 : 출가자는 (올바른 수행)을 하는 것

----- 라이프 스타일(하루를 바꿈)

정념 :

정정 :

-----마음

정견 : 기준이자 완성이다.

사성제 수행법과 팔고의 이해

초전법문과 삼전 12행상을 알아야 한다. 사성제 수행법이다.

고 : 8가지가 고라는 것을 인식하고 보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고에 대하여 눈이 생김.

법안을 뜯

집 : 고의 원인. 모든 고통의 원인 즉 갈애이다.

십원의 내용 중 세 번째는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속도일체중입니다.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이 서원은 매우 광대한 보리심의 한 측면이다.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는 것은 바로 자비심이다.

다라니의 모양은 대자비심이다. 천수경의 제목도 천수천안 관재재보살 광대원만무애대비심이다.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마음이 자비심이다. 대승에는 항상 자비심이 있다.

대한불교 종지인 직지인심 견성성불 : 상구보리 지혜안

전법도생 : 하화중생 원아속도일체중 자비심

조리와 속리의 관계(관음본연경 인연담)

조리 : 관세음보살

속리 : 대세지보살

아버지 : 아미타불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득선방편

나침반을 준비해 여행의 목적지를 정확히 알았다면 필수적인 준비물을 챙겨야 합니다.

성불 여행에는 세 가지가 필수인데 지혜와 자비, 방편이다.

이것은 밀교 대일경의 삼구법문이다.

밀교에는 방편이 필요한데, 천수경에는 방편인 대비주가 필요하다.

속승반야선

----- 타력수행

반야성은 반야의 배를 타고 싶다고 해석한다. 반야선은 지혜안과 중복된다. 이것은 성불 지도이다.

천수경은 소원성취의 백의관음, 극락의 핵심 사상인 정토의 핵심보살인 아미타불, 손과 눈이 천개인 밀교 사상을 갖고 있다.

반야선은 극락세계의 반야용선과 관련 있다.

아미타불이 48대원을 세우고 나신 뒤 절망하셨다. 본인 나라의 국민들이 갈 수 있는 정토가 하나도 없다. 문턱이 너무 높았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문턱인 십념왕생을 만들었다.

즉 염불 10번을 하면 왕생하기를 원한다.

(왕생하기를 원하는 것 : 원보리심 焰불 10번 : 행보리심)

임종하시는 순간에 자신이 갈 것 같을 때 스님이 가신다.

왜냐하면 임종의 순간이 너무 중요하다.

죽기 전에 자신은 극락왕생하고 싶다는 원이 있어야 한다.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돌아가실 때에는 죄책감이 떠오른다.

그래서 극락 못 간다고 생각한다. 이 마음을 해결 못한다. 인터뷰를 하면 나도 갈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긴다. 이 마음을 원심이 생겼다고 한다.

원심을 가졌다면 원보리심을 일으킨 것이다.

그것을 가기 위한 행위가 10번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것이다.

원심을 10번 나무아미타불을 임종에 가까웠을 때 외우면 된다.

그래서 가족에게 부탁한다.

지금부터 절대 울지 말고, 옆에서 안 좋았던 이야기 하지 말고焰불 틀고,焰불 듣도록 하고,焰불하도록 하고, 못하겠다면 같이 하고, 돌아가시 전에 나무아미타불만 하고 돌아가시니까 임종전에焰불을 한다.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가 되신 분에게는 죽음은 축복이다.

티벳의 사자서에 삶과 죽음의 본질에 대하여 배운다. 윤회를 하는 인간의 삶속에서 수행하기 제일 좋은 시기는 죽음 직후이다. 해탈하기 제일 좋은 순간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죽는 순간을 잡기 위하여이다.

이것을 매일 마음에 새겨야 원심이 생긴다. 자신의 죽음을 도와줄 조력자가 없다면 자신이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10원을 외울 때 삼구법문으로 자력수행을 하였다. 스스로의 힘으로 얻는 방법이 위의 3가지이다.

종교이니 타력으로 아미타불에게 의지한다. 타력수행을 한다. 아미타불에게 매일매일 발원한다.

극락 가는 반야용선을 탄다고 원을 세워야 한다. 그래야 죽을 때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

마음이 불안해지면 좋은 곳에 못 간다. 반야선을 타고 극락을 간다고 발원해야 한다.

십원문의 여섯 번째 보리원은 나무대비관세음 원아조득월고해이다.

관세음보살과 보리심 그리고 대비주라는 최상의 방편에 의지하여 하루 빨리 고해를 건너기를 서원하는 것이다.

고해를 건너다는 것은 다름 아닌 번뇌의 장애를 뛰어넘어 해탈하는 것이다.

고해를 건너 해탈한 이곳이 바로 성불 고속도로 위의 휴게소이다.

조득월고해

----- 오전수행(돈오)

해탈은 오전수행과 오후수행의 기준이다.